
◆ 會員社 動靜 ◆

LG産電(株), 공정제어사업 전품목 ISO9001 인증 획득

LG산전(株)(代表 : 李鍾秀)가 국내 최고 권위의 ISO 인증 기관인 한국표준협회 품질인증센터로부터 공정제어사업 전품목에 대한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9001은 ISO 시리즈중 설계, 개발, 생산, 설치, 서비스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괄하는 품질보증시스템으로 LG산전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온 품질관리 수준의 대외적 인정은 물론 향후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국내업체의 ISO 인증이 단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었던데 비해 LG산전의 경우는 국내 처음으로 분산제어시스템(DCS), 컴퓨터제어시스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자동제어계장시스템, 공장자동화시스템, 계측제어기기 등 공정제어 관련 전품목에 대한 인증 획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제어관련 시스템들은 발전소, 수처리 시설, 제철소 등 산업 플랜트의 공정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그 특성상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LG산전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1년에 걸쳐 공정제어사업 Unit 주관하에 분야별로 실무요원과 품질감사요원을 선발하고 수차례 자체 평가를 실시해 왔다.

現代重工業(株), 高능률 자동용접장치 개발

現代重工業(株)는 국내 최초로 용접토치 28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능률 자동용접장치인 「28전극자동 필렛 용접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대는 이 용접기 2대를 조선 2야드 선각공장에 설치, 용접능률이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 용접장치는 선체 중앙부 평면블록의 외판과 보강재 이음부를 필렛방식으로 자동용접하는 시스템으로 1분에 1.2m의 고속용접이 가능하며 용접부와 비용접부에 대한 자동 식별기능, 자체 고장 진단기능 등이 있어 생산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장치는 특히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가스를 자동제거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는 이 장치를 선각공장 전체에 배치키로 하고 추가제작에 들어갔다.

(株)光明制御, 퍼지 분산제어시스템 국산화

(株)光明制御(代表 : 韓喆愚)가 기존의 PID(비례미분적분) 제어방식에 퍼지제어 및 하이브리드 제어기술(알고리즘)을 접목시킨 퍼지 분산제어시스템(KADAC-20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퍼지 분산제어시스템은 발전설비 수처리설비 빌딩제어설비 등에 이용되는데 기존의 PID분산제어시스템에 비해 잦은 부하변동과 운용상의 소음을 대폭 개선했다.

또 환경(온습도)변화가 많은 공정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광명제어는 이 시스템이 환경변화에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퍼지제어와 제어범위를 종합적으로 조망·통제하는 하이브리드제어가 가능하고 자동조절률도 제고시켜 수입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설비는 하수처리장의 활성오니 처리고정 정수처리장의 약품투입 및 예측제어 전기전력 감시 대형빌딩의 분배전제어 등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해외서도 실용화단계에 있다.

광명제어연구소는 「이러한 시스템의 제조는 독일·일본 등에서도 상용화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광명제어가 처음 선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스템당 가격이 5억~10억원 규모에 달해 연간 1백~2백대 수요가 생길 경우 수입대체효과는 5백억~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광명제어는 중국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중국 동북성을 중심으로 15개의 전기 전력 발전 관련 정부를 대상으로 이 설비 수출을 추진, 연내에 3~4시스템(대당 10억원 규모)을 선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현지 관계자 2명이 현재 국내에 들어와 설비 운용교육을 받고 있다.

大成電線(株), 베트남 합작工場 증설

大成電線(株)(代表 : 梁始伯)가 베트남 체신청과 합작투자한 현지법인 「VINA DAESUNG」 케이블사가 지난 93년 설립이후 3년여만에 생산케파를 2배 이상 늘리게 됐다.

최근 베트남 하노이市 현지공장에서 대성전선 梁始伯사장 張貞洙부사장 DGPT(베트남체신청) 장관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VINA DAESUNG」 증설식에서 이 합작회사는 현재 대지 3천5백평에서 4천5백평, 건물 1천2백평에서 1천9백평으로 각각 늘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비나대성」 케이블은 생산규모면에서 연간 銅량기준 1천톤에서 2천4백톤으로 확대돼 베트남 전체 통신케이블 시장점유율도 현재 25%의 배가증가된 50%까지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비나대성에 증설된 통신케이블라인은 기존의 CCP등 단순케이블이 아닌 선진국형 폼스킨(Foam Skin)라인 9대가 증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성전선측이 합작투자한 비나대성은 베트남 현지에서 현재까지 진출한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중 최고의 성공회사로 평가되고 있는 동시에 매출액도 93년 20억, 94년 50억, 95년 1백50억 규모로 신장폭이 매년 배가되고 있어 향후 국내업체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모범기업으로 자리잡게될 전망이다.

(株)水山重工業, 유압 크로라드릴 매출호조

(株)水山重工業(會長 : 朴柱鐸)가 지난 '95년 6월 國內 최초로 國產化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해 온 「유압식 크로라드릴」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유압식 크로라드릴」은 석산, 안반, 터널작업, 토목기초 공사장 등에서 천공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水山重工業에서 國產化되기 전에는 일본이나 스웨덴에서 수입하여 왔으나 타격력이 뒤떨어지는 등 국내 작업현장 여건에 부적합하고 장비의 가격도 국내실정에 비하여 高價의 장비로 치부되어 왔다.

水山重工業에서 개발한 「유압식 크로라드릴」은 수입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유압의 힘을 이용한 강력한 타격장치인 유압 드리프터 개발로 타격력과 작업효율을 수입제품에 비해 30% 정도 향

상시키고 가격도 30% 정도 다운시킴은 물론 국내 작업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공해방지 장치의 일종인 집진기를 장착하여 분진 및 각종 작업먼지를 회수할 수 있고 소음 공해 방지를 위해 저소음으로 설계되는 등 기술에서도 선진국 제품보다 월등하고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여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지역의 수출에 활기를 띠 전망이다.

한편 동사에서 생산하는 「유압식 크로라드릴」은 '96년 상반기 동안 60여대 판매에 약 60억 정도의 매출성과를 올렸으며 '96년 하반기에는 100대 판매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수입 대체 효과만도 연간 300억 정도가 예상된다.

(株)코리아스엔, 리액터식 절전장치 기술이전

기술개발전문업체인 (株)코리아스엔(代表 : 鄭榮春)는 절전장치인 유니마이저의 특허·제조기술을 코오롱건설·엔지니어링사에 이전한다.

유니마이저는 동사가 4년간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으로 공장빌딩 가정의 수전반 접속시 모터동력 10~25%, 조명 부문 15~20% 절전효과와 전력부하정도에 따라 입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역률이 나쁜 교류전기기기의 경우 최고 30%까지 역률을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다.

한편 동사는 코오롱으로부터 연평균 10억원의 순로알티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회원업체 산업규격 표시허가 획득

업체명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LG전선(주)	KS C 3107	에나멜선	폴리에스테르동선	0종 : 0.10~3.2mm 1종 : 0.10~3.2mm 2종 : 0.06~1.0mm
			폴리우레탄동선	1종 : 0.10~1.0mm 2종 : 0.06~1.0mm 3종 : 0.06~0.6mm
			폴리에스테르이미드 동선	0종 : 0.10~2.6mm 1종 : 0.10~2.6mm 2종 : 0.06~1.0mm
	KS C 3602	600V 비닐절연 비질 컵타이어 케이블	등급 또는 호칭	
			단심 : 0.75~100mm ² 다심 : (2, 3, 4) : 0.75~8mm ²	

회원업체 변경 안내

업체명	대표자	변경내용	비고
(주)광명제어	한철우	서울시 광진구 능동 237-2 광명B/D TEL : (02)3436-0100 FAX : (02)3436-6077	본사 이전